

## 여성노인의 일과 여가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남 순 현<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여성노인은 노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과 여가 측면에서 남성노인보다 경력단절과 여가 부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성노인의 일과 여가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은퇴 후 일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여성노인 5명의 일과 여가 경험에 대한 전 생애 발달단계를 탐색해 보았다. 2013년 10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23일까지 초기설문지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전사하여 Lieblish 등의 통합적 형태분석과 범주적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노인의 일 생애주기는 청소년기의 진로결정기, 성인기의 일 진입기와 일 경력강화기, 중년기의 일 황금기 아니 일 암흑기, 은퇴기 그리고 은퇴 후 노년기로 구분되었다. 반면 여성노인의 여가 생애주기는 아동·청소년기의 여가 갈망기, 성인기의 여가 가족중심기, 중년기의 여가 도전기, 해방기 그리고 노년기로 분류되었다. 연구결과, 여성노인의 일과 여가의 생애주기는 성인기를 전후로 일과 여가가 변모하는 양상을 보였다. 어린 시절 여성노인이 늘 갈망해왔던 여가는 성인기 이후 여성노인의 일로 승화되어 나타났다. 여성노인은 일과 여가를 늘 가족과 함께 하려고 했고, 가족에게 얹매어 있었다. 하지만 여성노인은 모든 가족관계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진정한 여가의 참맛을 느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여성노인의 일과 여가 경험을 탐색해봄으로써 여성노인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언해보았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여성노인, 일, 여가, 일 생애주기, 여가 생애주기, 전 생애 발달단계, 생애사

\* 본 논문은 2014년 한국여성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움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 : shnam1227@nate.com)

##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고령사회로의 변화는 한국이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2014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38만 6천명으로 총 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성비는 71.3명으로 노인인구의 ⅔가 여성노인이다(통계청, 2014). 의료기술의 발달로 점점 남성노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2010년 기준 남성노인의 기대수명은 77.2세이고 여성노인의 기대수명은 84.1세로 여전히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6.9세 높다(통계청, 2014). 따라서 노인문제는 곧 여성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여성노인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 따른 여성차별은 여성노인의 문제를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는다(유공순, 2005). 경력단절과 배우자 사망 등으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건강, 빈곤, 소외 등으로 더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다(통계청, 2013). 하지만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고, 여성노인은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들의 건강이 유지되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만 지속된다면, 노년기는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시기이고 보다 더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이다(Butler, 1991). 최근 노인을 자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노인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본질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Troisi, 2013).

은퇴 후 노년기에 많은 노인들이 일을 원하

고 있다. 일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필요성이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8.3%로 남성노인의 절반수준 밖에 안 된다(통계청, 2014). 여성노인의 빈곤률이 OECD 국가 중 1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의 여성노인이 결혼과 동시에 경제활동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류도암, 2013). 또한 노년기 다양한 사회관계망의 배제는 여성노인의 직업세계 활동을 제약한다. 핵가족화에 따른 한국의 가족구조 변화는 과거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졌던 노인의 역할을 감소시켰고,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여성노인에게 더 심각한 역할상실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여성노인은 노인인 동시에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중배제의 대상이다.

은퇴 후 재취업이라는 ‘모호한 전환기’를 겪는 노인들은 연금이나 수입 등 경제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일에 대한 욕구가 매우 절실하다.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거나 젊은 시절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소홀했던 다양한 사회관계를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다(Butler & Schechter, 1995). 백지은(2008)은 일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이 노인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였다. 이에 은퇴 이전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는 형식으로 은퇴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가 나타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으로 해당 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걸어진 노년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김두섭, 2001). 성인기 일과 달리, 노년기 일은 경제적 의미 외에도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주는 사회참여, 소속감,

자긍심, 보람 등의 의미를 지닌다(박노숙, 2010). 이런 점에서 노인에게 일은 심리적, 정서적 만족을 넘어 정체감, 자기존중, 자기실현의 주요 토대가 될 수 있다(이재영, 김진숙, 2012). 따라서 노년기 일은 노인에게 은퇴준비미비로 인한 경제적 빈곤해결과 지속적인 사회참여의 통로 역할을 한다.

Havighurst, Neugarten과 Tobin(1968)은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은퇴 후 노인은 새로운 활동영역을 찾아 활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외국의 경우, 노인이 건강하게 살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의 전환으로 노인의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이민규, 원영신, 홍미화, 2011). 한국사회에서도 최근 노년기 여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노인의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활기를 띄고 있다(이유찬, 한혜원, 2001; 장호중, 신현규, 2008; 조만태, 김상대, 2008; 조은주, 2008; 한혜원, 2005). 노년기 행복한 삶은 단순히 생의 연장이 아닌 노후생활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노년기 여가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공적 노후를 증진시킨다(나향진, 2004). 따라서 노인에게 여가는 삶의 활력이며, 사회참여의 수단인 동시에 자기표현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해주며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지속적인 여가활동이 여성노인의 노후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강승애, 1997, 2006).

노인에게 일과 여가는 삶 그 자체이고, 삶의 중요한 영역이다. 일과 여가의 균형이 점

점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일과 여가를 분리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복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혼란스런 한국사회를 살아온 여성노인의 삶을 통해 전 생애 동안 여성노인의 일과 여가의 변화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노인의 일과 여가의 생애과정(life course)은 전 생애적 발달(life-span development) 안에서 주요 생애사건들(life events)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소년기 주요 생애사건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물리적 독립이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성인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또한 청소년기는 사회성 발달에 기반한 유아와 아동의 놀이가 비로소 여가의 형태로 확장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은 자신이 갖기를 원하는 직업을 결정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직업세계에 진입하여야 한다(Super, 1990). 동시에 청소년은 여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실현의 기회를 갖으며 자기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박민정, 2012).

성인기 주요 생애사건은 결혼과 자녀출산이다. 성인기는 성인 남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가족을 형성하고 부부, 부모, 자녀라는 새롭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해나가면서 사회에서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힘쓰는 시기다. Kelly와 Freysinger(2000)는 성인은 생계유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경력을 강화하며 자신감을 획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인기 일은 자아정체감의 핵심이며, 자존감이고 자기성장의 원천이기 때문에(김애순, 2012), 생계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 시기의 여가는

가족과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발달한다. 동시에 성인의 여가는 다양한 정보제공과 사회관계망 증진 속에서 사회정체감을 확장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중년기 주요 생애사건은 자녀양육과 자녀자립이다. 이 시기 많은 중년부모들은 빈둥지증후군을 경험하고, 중년기 위기를 겪으면서 심한 우울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중년에게 일은 더 이상 외적 보상이 중요하지 않고, 일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한다. 많은 중년이 일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직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 세계를 경험하기도 하지만(김애순, 2012), 경기침체 등 사회구조적 변화로 은퇴 연령이 점점 빨라지면서 현실적으로 한국의 많은 중년들은 강제로 일터에서 비자발적인 은퇴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반면에 성인기가 가족중심의 여가였다면, 중년기는 다시 새롭게 가정 밖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여가에 도전하는 시기다(윤소영, 2009).

노인의 일과 여가는 행복한 노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하지만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고 결혼과 동시에 경력단절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류도암, 2013), 노년기 새로운 일터를 찾는 데 한계를 지닌다. 고학력의 여성노인의 경우에도 배우자 사망 이후 길어진 노년기를 무위로 보내면서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전상남, 신학진, 2014).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적자원이 부족한 한국 고령화사회에서 생산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여성노인은 가족내 주 부양자(시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쉽이 부재한 삶을

살아왔다. 셋째, 여성노인은 가족중심의 삶 속에서 제한된 사회관계망을 형성해왔기 때문에(오인근, 오영삼, 김명일, 2009), 노년기 사회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에도 일 경험에 있는 여성노인들의 생애사를 통해 그들의 전 생애 일과 여가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노인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노인의 일 생애주기는 전 생애동안 어떻게 변해왔는가?

**연구문제 2.** 여성노인의 여가 생애주기는 전 생애동안 어떻게 변해왔는가?

## II. 연구방법

### 1. 생애사(life history approach)

최근 노년기 삶에 대한 연구방법으로서 생애사 연구방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생애사 연구는 화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중시하며 사회적 실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집중하여 현실의 주관적인 세계를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이효선, 2010, p.52). Clandinin과 Connelly(1994, 2000)는 생애사는 개인이 살아온 삶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생애사는 오케스트라의 합주곡에서 나오는 여러 소리의 어울림처럼 동시적

으로 듣는 것이다(윤형숙, 1994). 따라서 생애사 연구는 과거 삶의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이 노인들의 삶에 대한 해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한경혜, 2004). 여성노인들이 과거를 재평가하고 현재를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전 생애동안 체험한 일과 여가 경험은 재구성될 것이다.

해석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한 생애사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으로 1980년대부터 새롭게 조명되었다. 하지만 실증주의자들은 생애사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경험을 구술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화자의 망각, 착오, 자기생애에 대한 미화, 왜곡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객관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유철인, 1998). 화자가 자신의 생애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을 단순히 현재 시점에 반복 재생하는 행위가 아니다. 화자는 능동적 해석자로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선택하고, 주체화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해석한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인이 경험한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이 현재 시점에서 화자의 시각으로 재구성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유철인, 1998).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생애사(life history), 즉 화자의 주관성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과거 사건이나 경험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인의 생애관점에서 내면적 세계와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65세 이상 은퇴 후 일경험이 있는 여성노인 5명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23일까지 지인소개와 노인복지관을 통해 유목적적 편의표집에 의해 모집되었다. 여성노인의 평균연령은 74세였다. 건강상태는 대부분 양호했는데, 사례 1은 여러 차례 산부인과 수술과 심장약화로 양호한 편이 아니어서 하루 중 기도원의 생활을 편안해했고, 사례 3이 50세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왼손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결혼상태는 사례 1, 2, 3은 초혼이었고, 사례 4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사례 5는 사별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고, 각 사례별 서사적 생애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박 노인은 자신의 인생을 빛 좋은 개살구에 비유하였다. 박 노인의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국회의원이었고, 사회적으로 덕망받는 분이였다. 형제자매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이었다. 박 노인도 별 어려움없이 명문 중학교에 진학했다. 명문 중학교 입학은 박 노인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었다. 박 노인은 명문 중학교 입학 전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뛰어놀았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회고하였다. 박 노인에게 6.25사변 당시 피난은 가족소풍이었고, 온 가족이 함께 한다는 기쁨이었다. 박 노인은 학교생활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청소년기 박 노인은 늦은 밤까지 불빛이 새어나올까 봐 담요를 뒤집어쓰고 책을 읽곤 했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 참여자 | 연령  | 배우자 | 결혼<br>상태 | 결혼<br>기간 | 학력 | 경제<br>수준 | 건강<br>상태 | 은퇴<br>시기 | 일                                |                   | 여가                   |                           |
|-----|-----|-----|----------|----------|----|----------|----------|----------|----------------------------------|-------------------|----------------------|---------------------------|
|     |     |     |          |          |    |          |          |          | 은퇴 전                             | 은퇴 후              | 은퇴 전                 | 은퇴 후                      |
| 사례1 | 74세 | 유   | 초혼       | 43년      | 대졸 | 중        | 보통       | 35세      | 교사                               | 번역                | 책읽기 /<br>쉬기          | 기도원 /<br>수채화              |
| 사례2 | 71세 | 유   | 초혼       | 40년      | 대졸 | 중상       | 좋음       | 65세      | 피아노<br>교습 /<br>유치원<br>교사 및<br>원장 | 유치원<br>교사<br>및 원장 | 여행 /<br>테니스 /<br>가야금 | 여행 /<br>가야금 /<br>종교<br>활동 |
| 사례3 | 69세 | 유   | 초혼       | 41년      | 대졸 | 중        | 보통       | 50세      | 항공사 /<br>대사관 /<br>무역회사           | 영어강사 /<br>번역      | 쉬기 /<br>쇼핑 /<br>여행   | 독서 /<br>온라인<br>활동         |
| 사례4 | 73세 | 유   | 별거       | 35년      | 중졸 | 중하       | 좋음       | 56세      | 보험<br>설계                         | 요양<br>보호사         | 쉬기                   | 하모니카<br>/ 봉사              |
| 사례5 | 83세 | 무   | 사별       | 52년      | 고졸 | 중하       | 좋음       | 72세      | 어린이<br>집 운영                      | 보육<br>교사          | 독서 /<br>피아노          | 피아노 /<br>화초<br>가꾸기        |

대학 차석 졸업 후, 여동생 학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교사로 재직하지만, 원하지 않는 교직이어서 늘 그만두고 싶어했다. 박 노인은 인생에서 결혼이 가장 불행했다고 말한다. 29세 어머니의 바람으로 주위에 있던 남자교사와 결혼을 결심하고, 원하지 않던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박 노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결혼은 곧 시댁과의 갈등이었고, 시어머니의 말씀은 곧 법이었다. 결혼 후 남편의 미국 유학으로 딸을 혼자 낳아서 기르면서 박 노인은 남편 학비를 보냈다. 35세에 박 노인은 딸과 함께 남편이 공부하는 이스라엘(남편은 미국유학 3년 후 9년간 이스라엘에서 신학공부를 하였음)로 건너갔다. 유학생생활은 너무 고됐다. 박 노인은 공부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딸과 먹고 살기 위해서 도서관 사서부터

여행가이드까지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12년간의 긴 남편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42세 남편과 함께 귀국한 박 노인의 몸과 마음은 상당히 피폐해 있었다. 교수가 된 남편은 학교와 교회밖에 몰랐고, 시어머니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다. 박 노인의 유일한 위로는 성경이었다. 남편의 성경번역작업을 도와주면서 박 노인은 남편과 함께 번역 일을 했다. 그러다 박 노인은 1998년 친정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 적막함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번역하게 되면서 심한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박 노인은 63세에 히브리어 성경번역작업을 마치고, 성경책을 발간하였다. 지금 박 노인은 손자를 위한 청소년용 성경책 번역을 마쳤고, 69세 시어머니 사망 후 시작한 수채화를 그리면서 해방감을

맞보고 있다. 박 노인은 남편 유학시절 여러 차례 산부인과 수술을 받았고, 귀국 후에는 심장이 약해서 한두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건강상의 문제로 박 노인은 87년 45세부터 거의 기도원에서 생활하였다. 95세로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박 노인의 건강도 호전되었다. 박 노인은 남편이 이제야 박 노인의 건강상의 변화를 알아차렸다고 말하면서 웃음을 짓는다. 지금은 박 노인이 기도원에 갈려고 하면 남편이 운전해서 기도원에 데려다 주곤 한다.

<사례 2> 김 노인의 인생은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와 같다. 김 노인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어머니, 남편, 아들이다. 어머니는 김 노인이 피아노를 전공하지 못하게 막은 사람이고, 남편은 김 노인이 유치원을 잘 운영하여 부를 축적할 때마다 무리한 사업시도로 실패를 맛보게 한 사람이며, 아들은 김 노인을 유치원에 매달리게 한 장본인이다. 김 노인은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성장했다. 김 노인은 형제자매 중에서 가장 똑똑했기 때문에 가장 사랑받는 아이였다. 하지만 늘 무능력한 남자형제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로 인하여 원하지 않은 진로를 강요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노인은 굴하지 않고, 몰래 선생님과 함께 음대에 진학하였다. 이로 인해 어머니와의 갈등은 더 심해졌고, 27세 반대하는 결혼을 감행하면서 어머니와의 갈등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결혼 후 생활의 어려움으로 피아노를 계속할 수 없었다. 집 주인의 부탁으로 잠시 맡았던 학원에서 시작한 피아노교습이 이후 김 노인이 유치원교사가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김 노인은 2년간 단기로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3세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치원교사와 원장으로서 경력을 쌓아갔다. 김 노인은 결혼 전에는 피아노 외에 특별한 여가는 없었다고 한다. 김 노인의 유일한 여가는 결혼 후 남편과의 주말여행이었다. 김 노인이 주말여행에서 사는 낙을 찾았던 것은 1983년에 김 노인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9살 아들을 10살 딸과 함께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이후 김 노인의 삶은 주중에는 유치원, 주말에는 남편과의 여행으로 나뉘었다. 주중 가끔 남편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함께 테니스도 쳤다. 자녀들을 미국에 보낸 후 김 노인은 더 열심히 유치원 운영에 매진했고, 65세에 유치원이 강제철거되어 원하지 않은 은퇴를 하기 전까지 유치원은 40명 정원에서 300명 정원의 어린이집으로 확장할 정도로 번창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실패로 이혼위기를 경험했고, 이 무렵 김 노인은 우연히 TV에서 본 영아원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지금도 김 노인은 가야금과 해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노인요양시설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김 노인은 지인이 하는 유치원에서 원장과 교사 일을 하였고, 유급자원봉사도 하였다. 현재 김 노인의 가장 큰 고민은 남편이 해외파견근무를 그만두고 인력사업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말리는 일이다. 김 노인은 남편 사업결과에 따라 자신의 노후가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남편은 해외에 있다. 김 노인은 혼자서 주말여행을 다닌다. 남편과 함께 보내는 여행이 아니어서 김 노인에게 주말여행은 그다지 즐거움을 주진 못한다.

<사례 3> 안 노인은 늘 상위 1%를 꿈꿨

고, 채워지지 않은 욕심 때문에 항상 힘들었다. 안 노인은 의사인 아버지가 미군부대 근처에서 개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영어에 거부감이 없었다. 명문대 영문과 졸업 후 어렵지 않게 해외항공사에 취업하였다. 하지만 3년만에 항공사에 갑작스럽게 사직통보를 하고 일을 그만두었다. 항공사에 두고 온 집을 찾기 위해 방송사에 근무하는 남편과 만나서 결혼하면서 안 노인의 삶은 달라졌다. 남편은 명문대 출신이 아니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명석하지 못했고, 대학진학에 실패한 후 미국에서 겨우 대학을 마쳤다. 결혼 후 안 노인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이 퇴학당하게 되어 50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대사관에서 3년간 근무하였고, 이후 국내항공사에서 근무하다가 무역회사에서 일했다. 안 노인은 친구들이 자식 자랑할 때 가장 자존심이 상하고 눈물이 났다고 하였다. 미국유학 후 귀국한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안 노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무역회사와 항공사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는 등 동분서주했다. 지금은 아들이 항공사에 취업해서 잘 지내고 있고, 가정을 꾸려서 손자재롱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안 노인은 대학시절부터 돈 버는 재미에 살았고 돈 벌고 쓰는 재미가 좋다고 한다. 아들 취업시킨 후 영어회화를 시작하면서 삶의 활기를 찾았고 현재 복지관에서 실버강사로 활동 중이다. 안 노인에게 여가를 물어봤을 때, 안 노인은 어린 시절엔 병약해서 방과 후 집에서 쉬는 것이 유일한 여가였고, 젊은 시절에는 일하고 토요일에 쉬면서 목욕하고 가끔 머리 손질하고 아들과 함께 시간보내는 것이 여가였다고 하였다. 안 노인

은 지금도 일이 바빠서 여가없이 지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지금 안 노인은 과거 읽지 않았던 책을 보면서 독서의 참맛을 알아가고 있고, 동창회와 노인포털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글을 올리며, 가끔 컴퓨터로 음악 감상도 즐기고 있다.

<사례 4> 강 노인의 삶은 봉사다. 결혼 후 남편과 자녀를 위해 헌신했고, 지금은 교회와 독거노인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강 노인은 철부지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강 노인은 28세 늦은 나이에 만난 남편이 결혼 후 생활능력이 없어서 우유보급을 하다가 37세부터 보험설계 일을 시작하였다. 딸이 외손녀를 돌봐달라는 부탁에 56세에 보험설계 일을 그만두고, 치매인 친정어머니를 돌보면서 외손녀들을 보살폈다. 친정어머니를 돌보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았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요양보호사 일을 하게 되었다. 현재 복지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독거노인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가생활도 즐긴다. 어린 시절 오빠가 엄해서 하지 못하게 했던 하모니카도 배우고, 라틴댄스도 배우고 있다. 지금 강 노인은 젊은 시절 일이 바빠서 하지 못했던 여가를 즐기고 있다. 2000년에 부산에서 경기도로 이사 오면서 남편이 조카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지금 남편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별거 아닌 별거를 하고 있다. 이사 온 후 강 노인은 교회에 헌신하게 되었고, 교회는 지금 강 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오늘도 강노인은 새벽기도를 한다. ‘날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봉사를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례 5> 이 노인의 삶은 남편과 함께이다. 미션스쿨에 다녔던 이 노인의 삶은 52년 20살에 교회 사모(師母)의 소개로 목사인 남편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60년 남편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교회를 건설하고, 교회에서 한두 명씩 전쟁고아를 돌보던 것이 교회 어린이집으로 확장되어 2004년 75세에 79세인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교회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처음에는 사모(師母) 신분으로 혼자서 전쟁고아를 돌보다가 교회가 커지면서 어린이집으로 확장되었고, 보육교사도 증원하여 현재 어린이집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 노인은 사모(師母)로 교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75년 1년간 시청 복지과 직원의 권유로 여성교육(편물, 양재기술, 미용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노인에게 교회는 일터였고, 목사인 남편은 상사였으며, 어린이집은 삶 그 자체였다. 이 노인은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 외에 특별히 여가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당시 이 노인은 특별한 여가라고 할 것은 없지만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배우게 된 피아노와 무용이 가장 좋은 여가였다고 회고하였다. 자녀들이 성장한 후 남편과 함께 아들 2명은 모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노인은 딸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남편의 건강악화로 도미하기 전 72세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이 노인은 한국과 미국을 오고가며 남편치료를 하였고, 74세 귀국하였지만 결국 75세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하였다. 지금 이 노인은 미혼인 막내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현재 이 노인은 복지관 어린이집에서 가끔 원아들에게 동화구연을 해주면서 동화할머니로 활동하고 있다. 남편과 사별

한 후에 이 노인은 집 근처 가까운 교회와 복지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복지관 노인들과 동아리에 함께 참여하여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영어성경필사도 하고 있다. 이 노인은 남편 생존시 남편이 시를 쓸 때 곁에서 붓글씨를 썼다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영어성경필사 경험을 자랑스러워했다.

###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초기설문지와 생애도표 작성, 생애면담 및 심층면담 3가지 방식으로 여성노인의 일과 여가 경험을 탐색하였다.

첫째, 초기설문지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결혼기간과 상태, 건강상태, 경제수준, 은퇴시기, 은퇴 전후 일과 은퇴 전후 여가 등 연구참여자의 기본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설문 작성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둘째, ‘살아온 삶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라는 질문과 함께 연구참여자에게 생애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인생의 주요 전환사건을 중심으로 생애면담을 실시하였다. 셋째,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일과 여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된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따라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심층면담의 질문내용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Atkinson(1998)이 제안한 일, 여가, 노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3가지 주요 영역에 대한 핵심질문에 Spradley(1979)의 3가지 질문(전체적 여정에 관한 질문, 구조적 질문, 대조적 질문)을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질문내용들을 토대로 연

구참여자가 하는 행동이나 하였던 활동에 주목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주요 질문으로는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보람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은퇴 전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여가는 주로 누구와 함께 보냈습니까?’, ‘여가를 보내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은퇴 후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현재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여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등이었다.

면담의 전 과정은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되었고, 녹음된 내용은 그대로 전사하여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행동관찰, 감사흔적 및 객관적인 정보 확인(예, 저서, 사진, 일기형식의 간단한 메모 등) 등을 통해 자료의 다원화를 꾀하였다. 심층면담은 집이나 커피숍 등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사례별 2회에서 4회 실시되었고, 한 회기 면담은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여성노인들의 생애사는 Lieblish, Tuval-Mashiach와 Zilber(1998)의 내러티브 자료분석방식(the study of life narrative)에 따라 분석되었다. Lieblish 등(1998)의 생애사 자료 분석 방법은 다수의 생애사 자료에서 공통의 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써, 여러 명의 생애사 자료 분석에 유용하고, 다양한 유형과 사회문

화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한경혜, 2005).

먼저, 통합적 형태분석(holistic analysis of form)을 통해 각 생애사들의 전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였다. 통합적 형태분석은 생애사의 내용측면보다 각 생애사의 전체적인 구조를 분석한다.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점과 불행했던 시점을 중심으로 삶의 변화를 묘사하게 되는 생애도표구성방식이나 인생전환이 빈번하게 경험되는 인생단계의 위치를 탐색해보는 작업 등이 이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서사적 생애사 요약은 생애도표작성 내용과 생애면담 및 심층면담 내용에 기초하여 삶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노인의 일, 여가 및 삶의 행복(불행) 등을 탐색하는 것에 주된 초점을 맞추므로써, 인생의 정점과 저점에서 삶의 질의 변화를 탐색하고 빈번한 전환이 경험되는 인생단계를 탐색하여 기술하였다. 둘째, 범주적 내용분석(categorical-content perspective)을 통해 여성노인의 일과 여가 생애주기를 범주화해봄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범주적 내용분석은 여러 개의 생애사로부터 공통테마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들의 생애사에서 생애주기별 공통된 일과 여가 경험을 탐색하였다. 자료분석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는 판단을 유보하고 괄호치기하여 연구자의 선입견이 분석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 생애주기와 여가 생애주기 2개 영역에서 각각 5개씩 총 1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40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자료분석 결과

| 영역               | 주제                | 하위 주제                                                                                                                                       |
|------------------|-------------------|---------------------------------------------------------------------------------------------------------------------------------------------|
| 여성노인의<br>일 생애주기  | 진로결정기             | 수용 / 어쩔 수 없는 선택 / 갈등, 갈등의 연속 / 탈출 / 혼란과 좌절                                                                                                  |
|                  | 일 진입과<br>경력강화기    | 우연한 기회 / 결혼과 함께 / 자격증이 필요해 / 일을 인정받지 못하고 허드렛일도 마다않고 해야만 함 / 늘 보람되고 만족스럽지는 않음                                                                |
|                  | 일 황금기 아니<br>일 암흑기 | 일 절정경험 / 생계 때문에 일을 다시 시작함 / 직장생활을 내 마음대로 요리                                                                                                 |
|                  | 은퇴기               |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은퇴 / 남편 은퇴와 함께 나도 은퇴 함 / 자녀부양과 손자녀돌봄 / 뇌졸중으로 쓰러짐                                                                                |
|                  | 노년기               | 은퇴 전에 했던 일들 / 어린 시절 늘 갈망했던 일들 / 재취업 / 유급자원봉사 / 일하기엔 나이라는 장벽이 너무 높음 / 일은 삶 자체임 / 새벽기도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 / 일은 내게 구속, 하고 싶지 않음 / 추한 노인으로 늙고 싶지 않음 |
| 여성노인의<br>여가 생애주기 | 여가 갈망기            | 특별한 여가는 없었음 / 내 꿈을 찾아서                                                                                                                      |
|                  | 여가 가족중심기          | 남편, 자녀가 먼저                                                                                                                                  |
|                  | 여가 도전기            | 난 어디에도 없고 우울함 / 도전 그리고 실천 / 관계망 확장                                                                                                          |
|                  | 해방기               | 여성의 역할과 가족관계망에서 벗어남                                                                                                                         |
|                  | 노년기               | 새로운 나를 찾음 / 남편과 함께여서 행복함 / 여가의 참맛을 알게 됨 / 손자녀 재롱보기 / 봉사 / 종교생활                                                                              |

## 5. 연구의 질 검증과 윤리

생애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공동작업을 강조하기 때문에, 연구의 엄격성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패러다임에 따른 연구자의 지속적인 반성, 연구참여자와의 공동작업, 동료보고 및 다원화를 통해 연구의 질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질 검증뿐만 아니라 윤리적 고려는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동의철회 등을 사전에 고지해줌으로써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였다.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한 후 각각 한 부씩 나눠가졌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모두 고유사례번호를 부여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

고,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에게 감사인사와 소정의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연구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여성노인의 일 생애주기

여성노인의 일 생애주기는 청소년기 진로결정기, 성인기 일 진입기와 일 경력강화기, 중년기 일 황금기 아니 일 암흑기, 은퇴기 그리고 은퇴 후 노년기로 분류되었다.

##### 청소년기: 진로결정기

여성노인의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시기였다. 여성노인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가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야할 진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경우이다.

교회 사모님이 세 명의 여자를 보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잘 선택한 거예요. 제가 얼굴이 하얗다고(사례 5).

취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선생을 한다는 건 ... 지금 얘기하면 어머니가 화내겠지만 여동생 학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사례 1).

여성노인은 강압적인 진로 강요에 맞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도 하였다. 여성노인은 남

자형제들을 돌봐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부장적인 사고에 대항하여 여성으로서의 희생적인 삶을 거부하고 갈등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였다.

어머니가 나한테 결혼하지 말고 자기를 도와주면, 아들 다섯을 다 잘 살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나머지는 너를 줄게. (중략) 부당한 일이잖아요. 꽃잎 5개에다 집을 지어서 약국을 내가 운영해서 아들 다섯과 살게 해다오. 그게 뭐예요. 아들 다섯의 노예를 하란 말이잖아요. 너무 너무 끔찍한 얘기지. (중략) 약대를 안가고 약대 지방대 시험을 봐가지고 백지를 내고 나와 가지고 그 다음 해 서울로 대학을 왔어요. 선생님 하고 비밀리에 원서를 써가지고 ... 서울서 학교를 다녔죠(사례 2).

여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한 여성노인은 가족과의 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결혼과 동시에 집에서 탈출하면서 갈등에서 벗어나거나 집에서 먼 근무지를 선택하면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남편이 공무원이니까 가난했잖아요. 남편도 훌훌단신. 나도 뭐 결혼을 빌미로 도망치다시피 나온 사람이고. 그러곤 연락을 안했어요(사례 2).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 멀리 가서 선생하고 싶다 그랬어요. 00여고를 갔어요. 거기에 간 이유는 서울에서만 살았잖아요. 시골인줄 알고(사례 1).

반면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여성노인은 많은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였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내 인생이 나 혼자 괴로운거야(사례 1).

### 성인기: 일 진입과 경력강화기

여성노인은 성인초기에 첫 직장을 얻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일 진입기를 맞이하였다. 여성노인은 일 진입기에 우연한 기회에 늘 갈망하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일하게 되었으며,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이 숙명처럼 되어버렸다.

그때 셋방에 사는데. 6개월 어디 간다고 하면서 자기가 레슨하는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다오. (중략) 연습만 하니까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조금 봐줬죠. (중략) 그때 내가 피아노를 한 대 사가지고 애들을 집에서 레슨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유치원이 없다는 거예요. 관리건물 에다 강당으로 쓸려고 하는 건물이 있었는데. 임시로 유치원을 운영하자. 동대표들이 의논을 했나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보고 유치원을 운영해달라는 거예요(사례 2).

나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미군부대 가까운 데서 개업을 했어요. 그때 내가 정식으로 영어회화를 배우진 않았지만 아 영어회화가 별거 아니구나 그냥 예스 이러면 되는 거구나 나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

이 없었어요. 인터뷰 딱 끝났는데 내가 성격이 급해 빨랑 답이 알고 싶은거야. (중략) 언제 이거 대답 주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곧 가지게 될 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된 거예요(사례 3).

결혼 후 남편이 선교사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00에서 지원도 받고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공부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한두 명 봐줬지(사례 5).

성인후기에 여성노인은 점점 자신의 일에서 경력을 쌓아가고 주위의 인정을 받게 되는 일 경력강화기를 거쳤다.

그때는 그러니까 막말로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내 마음대로 아주 피프티 퍼피티야. 뭐 오십프로는 전업주부같은 기분도 느끼고, 오십프로는 직장 워킹맘도 느끼고. 그러니까 완전히 내 맘대로 하는거야. 생활을 즐기고. 그때는 일이라고 생각안하고 놀며 즐기면서 돈벌고 완전히 일석이조라고 그러나. 놀면서 출근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오고. 그런 생활을 한거지(사례 3).

여성노인은 경력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했고, 부족한 부분은 배우고 익히면서 자신의 일터에서 인정받았다.

교사로 있다가 31살 땀가 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학원을 만들었지. 학원을 하면서 유치원을 하다가 정리하고 95년도엔

가 내가 유치원을 설립해 가지고 원장을 채용해서 2년간 하다가 2년 후 내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사람을 내보내고 그때부터 내가 유치원 원장을 본격적으로 한 거지(사례 1).

00시 직원이 나보고 공장에 다니는 그런 여자들을 교육해달라는거야. 내가 피아노를 쳤거든. 잘 못쳤는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피아노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런거지. 그래서 여자들한테 편물도 가르치고, 양재도 하고 파마하는 것도 하고 그랬지(사례 5).

난 일년하고 때려치우고 안할려고 했어 ... 애들이 지루할까봐 야화집도 보고. 못갈 때는 밤 3시까지. 가르치는 것 외에 아름다운 건. 여자잖아. 가정방문을 다했어요. 한 번도 온 사람이 가정방문을 못했대요. 차편이 없으니까. 제가 안갔겠어요. 초등학교때 배운 자건거가. 자건거가 있었어요. 아저씨를 끌고 제가 그거 타고 30리씩을 갔죠(사례 1).

하지만 일 경력강화기에 자신의 일에 모든 여성노인이 다 보람을 느끼거나 만족해하지는 않았다.

선생 안한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1년을 쉬었어요. 쉬었는데 남편 유학한다고 하니까 좋은 조건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딸을 3월에 낳는데 2월에 중3 담임을 맡기는 거예요. 애 낳고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남편도 없지. 중3 담임을 죽어라 했잖아. 고등학교 골치아픈 반을 맡은거야.

진학반이었어. 딸이 너무 아픈거야. 너무 아픈데 밤에 오면 오빠병원에서 그만 줄다가 인생이 괴로운거야(사례 1).

### 중년기: 일 황금기 아니 일 암흑기

중년기 여성노인에게 일은 황금기인 동시에 암흑기였다. 중년기 일 황금기를 맞이한 여성노인들은 자신의 일에서 절정을 경험하였다.

우연하게 유치원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100명 정원이었어요. 그 당시 그게 가장 큰 규모였어요. 그걸 인수했죠. 그걸 사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밤낮 그러는 거예요. 57세쯤 유치원을 정리하고 어린이집을 한 거거든요. 규모가 한 5배쯤 컸어요. 그러니까 그걸 30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거거든요. 그걸 보면 내가 운영을 잘했나봐요. 나는 원래 내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하거든요. 내 아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사례 2).

반면에, 여성노인에게 결혼은 곧 일 암흑기를 의미했다. 결혼과 동시에 일에서 물러나야 했고,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허드렛일들을 해야만 했다.

도둑질 외에는 다 했어요 ... 정원사 아저씨는 너무 힘들게 손이 오래 일해서 가시가 안썰려요. 그런데 난 맨 가시로 밤에는 손이 아파서 ... 도서관에서 일하는 건 한 사람당 500불 받는 부자들이 오는 그 일을 하게 해주니까. 일을 내가 찾아서 다

했지(사례 1).

보험하게 된 건 저희 남편이 생활능력이 없더라고 ... 결혼하니까.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나마 친정에서 제 눈을 뚫어줬기 때문에 보험회사 들어가기가 수월했어요(사례 4).

### 은퇴기

은퇴기는 자신의 일 역할에서 분리되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노인의 은퇴 시기는 35세에서 72세로 다양했다. 은퇴 이유는 신도시 재개발로 어린이집이 강제철거되면서 65세에 비자발적인 은퇴를 경험하거나,

내가 뭐, 은퇴하고 싶어서 은퇴했으면 즐거웠겠쥬. 그랬으면 정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지냈을텐데. (중략)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내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중략) 우리나라 법이 사유재산 보장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개발한다. 그리고 공시하고 뺏어 가면 그걸로 끝이니까 ... 회복이 안되요(사례 2).

미국유학 중인 아들의 퇴학소식을 듣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50세에 일에서 물러나거나,

떨어지니 들어갈 때도 없고, 그래서 외국을 보낸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냈는데 1년만에 퇴학을 당했어. 누구 시험을 보여줬대. 그 퇴학 소식을 듣고 닳새만에 뇌졸중이 온거야 ... 아무도 몰라. 그 누적이 나를 병들게 했다는 걸 누구에게 말하기조차 창피했어 ... 그때 내 인생은 끝났

고 막말로 내 생명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사례 3).

직장생활을 하는 딸을 위해 손자녀를 돌보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그 시점에서 55센가 언젠데 ... 애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둘 다 직장에 다녀요. 그러니까 생활이 제가 기본 재산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남들과 같이, 남의 부모들처럼 재산을 못 넘겨주고, 저리 살겠다고 하는데 내가 애들 봐달라고 하니까 애는 봐주고 가야되겠다 그렇게 오게 됐어요(사례 4).

혹은 남편 때문에 은퇴를 경험하였다. 한 여성노인은 결혼 후 남편유학으로 도이(渡伊)하면서 35세, 다른 여성노인은 남편건강악화로 도미(渡美)하면서 72세에 은퇴를 경험하였다. 류도암(2013)은 여성노인은 결혼과 동시에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삶을 살아왔다고 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도 남편이 일에서 물러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한 여성노인은 결혼하면서 남편이 하는 일을 함께 시작하였고 심장이 약한 남편이 건강이 악화되어 미국에서 치료받게 되면서 함께 일에서 물러났다. 즉, 남편의 일이 여성 노인의 일인 동시에 남편의 은퇴가 여성노인의 은퇴였다.

애 낳고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선생도 힘들어. 우리 딸이 아빠한테 가자 그래서(사례 1).

아들하고 차를 타고 오다가 차가 갑자기 쏘대. 급정거를 했나봐요. 근데 저녁에

집에 와서는 아프다고 심장을 부여잡는거야. 응급차가 왔지. 딸이 미국에 있었거든. 치료받으려고 다 정리하고 갔어요(사례 5).

### 노년기 일

여성노인은 은퇴 후 노년기에도 일을 원했다. 여성노인에게 은퇴 후 노년기는 일 역할에서 분리된 후 노년기에 새롭게 일을 시작하거나 은퇴 후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시기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노인은 은퇴 후에도 은퇴 전에 했던 일을 계속 하였다.

나한테 그 ...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원장이 나하고 평상시에 친했는데. 하도 사정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존심의 문제 아니냐고, 나 보고 그러는데. 뭐, 일에 있어서 자존심이 뭐 상관있어요. 몇 차례 거절하다가 할 수 없이 가서 일을 했는데 ... 재밌더라고요. 선생으로 1년 갔고, 2년은 원장으로 갔고(사례 2).

동화를 읽어줘요. 복지관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지.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동화책이 없었거든(사례 5).

노년기에 전혀 새로운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된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책 읽는 것이 낙이었고, 남편 유학시절 성경책을 읽으면서 위로받았던 것이 어머니 사망 이후 일로 승화되어 나타났다.

제가 번역을 하게 된 게 우리 어머니가

98년 1월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번역을 시작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갑자기 왼쪽 다리가 아파서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공허한데 발에 혹이 석회석이. 오빠가 정형외과했으니까 수술하라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지. 오빠가 다리 혹을 일센치 잘라서 붙이면 된다고 기브스해주고. 책을 보고 성경을 봐도 발뻘이고 할게 없잖아 그러니까 번역을 했죠. 우리 엄마는 간적도 없어요. 내 가슴에 있어요 ... 이스라엘 있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성경을 봐야지 ... 성경번역하는게 나는 그게 감사해요(사례 1).

은퇴 후에도 여성노인들은 계속 일을 원했고, 재취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경우 외에도 유급 자원봉사활동의 형태로 일을 하기도 했다.

00협회 들어가 보니까 게시판에 떠 있더라고요. 유치원 철거되고 놀기 무료하니까 00공부를 하게 됐는데 ...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봉사라고만 한다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누군가 해줘야 될 일 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그 일을 할려고 딱 나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사례 2).

복지관에서 필요로 하니까. 돈도 주고. 시간보내는 것도 무료하고 그러니까 하지. 영어성경필사는 봉사구(사례 5).

하지만 재취업을 시도했을 때, 노년기 여성은 연령 때문에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웠고, 사

회적으로도 여성노인이 일하는 것을 더 원하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에 이력서를 냈어요. 제 경력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너무 좋은데 나이가 많다고.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지원받는데 문제가 있다고(사례 2).

서류를 보더만 제가 70대니까 오히려 제가 간병을 받아야할 판인데 누가 쓰겠어요? 어떻게 저 집처럼 마음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사례 4).

일이 삶을 구속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여성노인도 있었지만(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 나를 구속하는 거, 사례 1), 은퇴 후 여성노인에게 일은 삶 그 자체였다. 일은 계속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활동이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 하고 싶은 활동이었다. 따라서 삶의 중요한 부분은 일이 되기도 하였다.

일 그 자체는 삶이지요. 일 자체가 삶이고. 내가 가치있게 생각하고 성취할 수 있는 꺼리, 꺼리가 없으면 무의미하다는거죠. 놀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즐겁게 하는거죠 ... 나한테 그 ...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사례 2).

일이라는거는 나는 일이 없다는거는 은퇴를 넘어서 우리가 삶의 은퇴라고 삶이라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무슨 돈 버는 일만 일이 아니라 삶이 살게 돌아가

는게 살림아니예요. 사람을 살리는게 살림이니까 살림만 잘해도 일이잖아요. 살림이 멈춘다는건 그때부터 죽음만 기다리는거예요. 그렇잖아요, 살림을 하든 돈을 벌든 일이라는건 사는 날까지 죽기 직전까지 하는 것이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일이 끝나면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부터 죽기를 기다리는 인생이야 (사례 3).

새벽기도가 일이라 안했습니까. 내 정신, 육체를 다 쏟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알면 알수록 파고 들어가니까 요즘은 더 힘드네요 ... 일생이지요. 일생의 전부지 뭐(사례 4).

한편으로 여성노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고 하였지만(아침에 일어나서 등산가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2), 더 이상 경제력이 없는 추한 노인으로 늙고 싶지 않고, 자녀와 사회에 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노인이 눈도 펄펄 오는데 들어오셨어요. 자기가 돈을 꼭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할 곳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거예요. 그 노인이 연세가 얼마냐. 82세였어요. 그래서 내가 80세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건 그래서 그런거예요. 일을 해야 산데. 아들 사업 보증서서 자기가 다 맡아먹었데요. 부인하고 자기하고 둘이 먹고 살아야 된대요(사례 2).

## 2. 여성노인의 여가 생애주기

여성노인의 여가 생애주기는 아동·청소년기 여가 갈망기, 성인기 여가 가족중심기, 중년기 여가 도전기, 해방기, 그리고 노년기 여가로 구분되었다.

### 아동·청소년기: 여가 갈망기

여성노인에게 아동·청소년기는 여가 갈망기에 해당하였다. 대부분 여성노인들은 특별한 여가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결혼 전에 여가는 거의 없었고, 사례 2; 뭐 그런 게 있어나, 사례 3). 하지만 이 시기 여성노인들은 여성으로서 삶을 강요하는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탈출구이자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여가를 갈망했다.

공부안하고 자전거타고 다니다가 선생님이 쫓아다니고 ... 공기하고 자전거타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런 게 다 없어져서 ... 불빛이 새어나올까봐 담요 뒤집어쓰고 책 읽는 게 제일 좋았어요(사례 1).

어머니가 나한테 결혼하지 말고 ... 아들 다섯을 다 잘 살게 만들어준 다음에 ... 집을 지어서 약국을 내가 운영해서 아들 다섯과 살게 해다오. (중략) 안집 부인이 나만큼 젊은 사람이었는데 집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나는 피아노를 못가지고 있는데 항상 갈망이죠(사례 2).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어나. 전쟁 통에 그냥 먹고 사는 거지. 그래도 신교육을 받은 여자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걸 했어 ... 교회에서 노텔 불렀지(사례 5).

### 성인기: 여가 가족중심기

여성노인들은 결혼과 동시에 모든 생활이 가족중심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여성노인에게 성인기 여가는 결혼과 함께 여성노인 자신은 없어지고, 배우자, 자녀중심의 여가를 보내게 되는 가족중심기였다.

결혼 전에 여가는 거의 없었고 ... 한 달에 세 번은 여행을 가요. 남편이 연휴되고 주말되면 집에 가만히 앉아있기 싫어하고 나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요. 한두 번 시작하니까 자연히 꼭 가게 되지(사례 2).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하하 ... 여기가 성지니까 성경을 보자 그래서 봤어요. 제일 돈 안드는 게 책보는 거잖아요. 성경을 계속 보니까 히브리어를 대학교가서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안내를 하면 다른 사람보다 성경 내용이 현지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제가 안내하면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성경 번역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 번역할 때 옆에서 정리해주고(사례 1).

목사님이 교회를 하니까 함께 애들을 보면서 피아노도 치고 무용도 하고 그랬지. 내가 무용도 잘하거든(사례 5).

### 중년기: 여가 도전기

중년기는 여성노인에게 여가 도전기였다. 중년기는 가정적으로 배우자, 자녀, 일 경력에서 황금기를 맞이하지만 일 암흑기를 보내면서 여성으로서 나는 없어지는 우울한 시기였다(자꾸 디프레스되잖아요, 나도 살고. 하나의 디프레스되는 걸 안겨올려고, 사례 1). 이 시

기 여성노인의 여가는 자신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었고, 과거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에 도전해보거나 시대과의 갈등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해주었다.

가야금을 한 30년 했어요. 해금도 하고 (사례 2).

우리 남편이 시누이가 뭐라 해도 딱 막아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 시어머니가 95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오래 참았지. 인제 고자질해서 힘들게 할 시어머니가 안계시지만 ... 기도원에 가요. 여가를 즐기고 싶다는 건강하고 싶다. 의사가 수영하라고 그랬거든요. 몸만 하는 거 있죠. 걷기도 하고 기구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40분하고 수영을 일주일에 3번씩 하고. 종교활동일 수도 있는데 ... 기도원은 제 삶이에요. 88년에 못걸었어요. 많이 부어가지고. 소화도 안되고. 그래서 기도원에 갔는데. 장로님이 여기 안수해줘서 그랬는지 조금씩 나아졌어요(사례 1).

또한 이 시기 여성노인이 자기를 찾는 노력은 친구모임을 새롭게 형성하는 등의 관계망 확장과 자원봉사의 형태로도 나타났다.

친구만나다가 그룹으로 5명인가 6명이야. 생각이 안나네. 5만원씩 내서 여행도 가자 그리고 만난게 91년부터예요(사례 1).

처음에 수녀님이 운영하는 영아보호시설 그런데 봉사자가 없다고 그래서 다녔지 (사례 2).

## 해방기

여성노인이 중년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여가 해방기로 이어졌다. 해방기는 여성노인이 여성의 역할과 가족관계망에서 벗어나는 시기다. 해방기는 개인에 따라 다소 시간적인 차이를 보였지만, 대부분 중년기와 노년기 사이에 나타났다.

젊었을 때는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이젠 많이 내려놔어요(사례 2).

모든 게 여가라면 좋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행복해요. 제가 얼마나 가슴에 가슴이 찔렸어요. 핸드폰 말고 00로 시작해서 집으로 오는 전화는 안 받아요. 시누이가 하는 전화예요. 전화기 방식으로 덮어놓고 냅다 찬송부르고. (중략) 나는 아직 만족을 못느끼는데. 친정식구들이 다 모이는 게 교회예요. 나는 구속받기 싫다. 그런 마음이니까 재밌죠(사례 1).

## 노년기 여가

여성노인에게 노년기 여가는 자유, 기쁨, 그리고 자기표현이었다. 따라서 노년기 여가는 기존의 집(생계유지, 원가족과의 관계망, 자녀 부양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시기였다.

일주일 거의 복지관에서 지내요. 재밌어요. 지난주에는 장기자랑도 했는데. 내가 하모니카를 잘 못하지만. 작년 이맘때 영어성경필사본 전시도 했어요(사례 5).

평생에 하고 싶은 거 처음해본거야. 실버합창단을 하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나

와서. 역사탐방 이런 거는 돌아다니니까 싫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는 수채화밖에 없더라고. (중략) 하얀 도화지에 내 마음대로 채워진다. 제 머리를 다 동원해서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만족이요. 내가 자유롭고 싶어요 ... 저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사례 1).

영문과를 나왔지만 내가 영문과 다닐 때엔 내가 뭐 하러 영문과 왔나 차라리 의대를 갈 걸 재미도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지금 영문학사에 남을만한 책이 위대한 개츠비라든가 헤밍웨이 책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이까짓 책들이 무슨 영문학사에 남나 했던 책들을 지금 제목만 생각나서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영문학사에 남았겠지 하고 읽어보면.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허무하게 무료하게 보내는 건 거의 없어요(사례 3).

하지만 노년기 여성노인이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노인에게 배우자와의 관계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부부여가는 여성노인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었다.

남편하고 짹짹이 잘맞고 시간이 같이 나니까. 그렇잖아요. (중략) 노년에 같이 취미생활을 즐긴다는 것이 타인끼리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남편이랑 즐겁게 그렇게 꽃구경 갔을 때 그때가 제일 즐겁고...(사례 2).

가스안차니까. 우리 남편 참 빨리 알죠. 어, 요새 가스안차네. (중략) 의사가 남편

들어오라고. 당신이 돈이 있어. 이 여자가 쇼핑을 하느냐 여행을 하느냐 친구를 만나느냐 하루 30분씩 대화를 나눠라. (중략) 요샌 기도원에 함께 가요. 남편은 잘 가지 않는데.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갈 때 차로 데려다줘요(사례 1).

목사님이 시인이니까 시를 쓰면 그때 내가 곁에서 붓글씨를 쓰면서 정리해주시기도 했는데...(사례 5).

또한 노년기 여성은 손자녀와 함께 여가를 보내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봉사활동이 여성노인에게 큰 즐거움을 주진 못했다.

손자가 한국에 있을 때 애비는 외국에 갔고. 애미는 계속 공부하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키웠기 때문에, 아주 제가 딸하고 가까운 것처럼 손자하고도 가까워요. (중략) 제가 해준 한문책 혼자 하기 힘들다고. 할머니 도와줘 그래서. 모든 시간 스탠바이예요(사례 1).

우리 어머니가 레이첼스의 '유돈노미'라는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 우리 손주가 피아노를 배우더니 그걸 치는데 ... 그걸 손주가 듣더니 할머니 나 노래 배울래. 악보 사다줘. 그래서 악보를 사다줬더니. 지난 12월 1일이 내 생일인데 ... 개가 피아노를 치면서 그니까 사대가 부르는 거야. 할머니, 남편, 아들, 손주까지. 사대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게 너무 재밌어서 노인네 포털사이트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고 신기하다고. 그게 바로 12월

1일이 생일이었어요(사례 3).

가야금. 12월에 공연이 있어요. 그 준비로 바빠요. 봉사를 하기도 하고 발표회를 해요. 우리 단체에서. 젊어서보다 더 잘 안 외워져 가지고. 온천도 다니고. (중략) 봉사를 갔다. 내가 나서 살아왔으니까 봉사도 가야지. 이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봉사를 위해서 정말 즐겁다 그렇지 않더라구요(사례 2).

노년기 여성의 중요한 삶의 일부분은 종교였다. 새벽기도를 일이라고 강조했던 여성노인도 있었지만, 여성노인이 노년기에 종교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신앙심은 물론,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고, 함께 무료한 시간을 보낼 곳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교활동일 수도 있는데 ... 기도원은 제 삶이에요. (중략) 거실에 문 닫고 댕다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듣고 안듣고는 하나님 마음이고. (중략) 저는 그냥 지금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대로 살 것이고(사례 1).

주말에는 교회에 가지. 예배도 보고. 복지관에 나가지 않는 날은 교회에 가(사례 5).

또한 여성노인은 어린 시절 할 수 없었던 것을 노년기 여가로 즐겼다.

즐거움이지요. 악기 다루고 하는 취미를 좋아했어요. 옛날에 친정 오빠가 엄해서

오로지 공부만 하라했고 이런 악기는 절대 안 됐어요. 앞만 보고 결혼해서 살며 여유가 없었죠.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을 얻습니다(사례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인은 여가는 일한 후에 주어지는 보상이고 즐거움이라고 일의 의미를 더 강조했다(내가 생각할 때는, 여가는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일없는 여가는 즐거움이 없어요. 유치원했을 때도 바쁘게 꼭 주말엔 여행을 갔으니까, 사례 2). 이는 노년기 길어진 시간을 보내기 무료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냥 노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며칠 놀아보니까 몸이 뒤틀리더라고. 하나도 재미없어요(사례 2).

그냥 시간이 비면 죽고 싶고. 그러니까 나한테 일을 주는 거죠(사례 2).

#### IV. 논의 및 결론

최근 여성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정부가 여성노인을 위한 건강, 돌봄, 안전, 일자리 사업 및 활동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 정책들은 실제 여성노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정책이기보다는 실무자들의 판단과 사고틀에서 평가하고 판단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더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여성노인들의 살아온 삶 속에서 여성노인들이 당당한 주체로

경험한 일과 여가를 탐색해보고, 그 중요성을 타자화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목적적 편의표집을 통해 모집된 65세 이상 5명의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여성노인의 전 생애 발달단계에 따른 일과 여가 경험을 탐색해보았다.

연구결과, 여성노인의 전 생애 발달단계별 일 생애주기는 청소년기 진로결정기, 성인기 일 진입기와 일 경력강화기, 중년기 일 황금기 아니 일 암흑기, 은퇴기 그리고 은퇴 후 노년기로 나뉘었다. 각 발달단계별 일 생애주기의 본질적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청소년기 진로결정기는 여성노인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기이고, 성인초기 일 진입기는 여성노인이 선택한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며, 성인후기 일 경력강화기는 여성노인이 선택한 일터에서 인정받고 경력을 쌓아가는 시기였다. 중년기 일 황금기는 여성노인이 자신의 일터에서 절정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이 시기는 동시에 결혼과 함께 경력단절을 경험했다가 생계유지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경력과 관계없이 허드렛일들을 하게 되는 일 암흑기이기도 하다. 은퇴기는 여성노인이 실질적인 일에서 물러나서 일과 분리되는 시기였으며, 은퇴 후 노년기는 여성노인이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기였다. 여성노인이 노년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무능력한 노인이 아닌 경제력을 지닌 당당한 노인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여성노인에게 진로결정기는 수용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부

당한 강압과 당당히 맞서 싸워야만 하는 시기였다. 여성노인은 우연한 기회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높은 경쟁을 뚫고 자신의 능력을 펼쳤으며, 결혼을 하면서 일에 진입하였다. 여성노인은 자신의 일터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배워나가면서 자신의 일터를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일 황금기에 여성노인은 절정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결혼과 함께 일 암흑기를 경험했다. 이 시기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노인은 모두 비자발적인 은퇴를 경험하면서 노년기를 맞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노인에게 노년기 일은 삶이고, 생명이며 생활이었다.

여성노인의 전 생애 발달단계별 여가 생애주기는 아동·청소년기 여가 갈망기, 성인기 여가 가족중심기, 중년기 여가 도전기, 해방기 그리고 노년기 여가로 나뉘었다. 각 발달단계별 여가 생애주기의 본질적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아동·청소년기 여가 갈망기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강요하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탈출구로서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여가를 갈망하는 시기이다. 성인기 여가 가족중심기는 여성노인이 결혼과 함께 여성으로서 자신은 없어지고 배우자, 자녀 중심의 여가를 보내게 되는 시기이다.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여성노인은 나를 찾으려고 했고, 이는 여가에서도 나타났다. 여가 도전기는 여성노인이 배우자, 자녀 그리고 일 경력에서 황금기를 맞이하거나 일 암흑기로 우울할 때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돌파구를 찾는 시기였다. 결혼하면서 가족중심의 삶을 살아온 여성노인의

여가는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로 넘어가기 전에 해방기를 경험하였다. 여성노인에게 해방기는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관계망에서 벗어나는 시기였다. 즉, 이 시기에 여성노인은 여가를 통해서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 시댁과의 갈등 및 생계유지 등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움을 경험하였다. 노년기 여가는 여성노인에게 자유, 즐거움 및 자기표현이었다. 다시 말해서 여성노인에게 노년기 여가는 생계유지, 원가족과의 관계망, 자녀부양 등의 기존 역할에서 담당해야만 했던 짐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기였다.

청소년기 여가 갈망기에 여성노인은 특별한 여가를 즐기지 않았지만 자신의 꿈을 찾아 힘겨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여성노인에게 성인기는 결혼과 함께 나보다는 배우자와 자녀가 먼저인 여가 가족중심기였고, 중년기에 여성노인은 나를 찾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여성노인을 엮어매고 있었던 모든 관계망에서 벗어나 해방기를 맞으면서 노년기 여성노인은 여가를 통해 자유를 만끽하였다.

여성노인은 여성인 동시에 노인이라는 점에서 이중 사회배제의 대상이고, 많은 학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여성노인은 노년기 경제적 빈곤(류도암, 2013; 전상남, 신학진, 2014), 사회관계망 약화(오인근 등, 2009) 및 쉽이 부재한 삶을 살아왔다. 본 연구에서 여성노인은 첫째, 가부장적인 유교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삶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여성노인은 자신의 삶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았다.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많

은 노력을 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구속하고 강요하는 가족과 사회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둘째, 여성노인에게 결혼은 경제활동에서 벗어나는 경력단절의 삶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결혼은 동시에 여성노인에게 일터를 제공해주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하면서 가족부양과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여성의 직업경력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성에게 결혼이 반드시 경력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여성노인의 삶은 관계중심이라는 특징을 지녔다. 특히 가족중심이었고, 배우자와 자녀가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여성노인은 배우자와 평생 함께 일을 했고, 배우자 때문에 타지에서 고생했으며, 배우자 때문에 원하지 않는 관계망(시댁)으로 갈등하고 힘들어했다. 하지만 노년기에 여성에게 배우자는 삶의 의미였고, 일과 여가를 함께 해야 할 동반자였다. 노년기에 손자녀가 여성노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여성노인의 삶에 활력을 주었다. 자녀를 조기유학보내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여성노인은 일로서 자녀의 자리를 채워나갔고, 시댁과의 심한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여성노인은 딸과의 친밀한 관계로 갈등을 해소했다. 이는 여성노인이 당당한 주체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노인의 일과 여가는 성인기를 기점으로 포물선이 교차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여성노인이 아동·청소년기에 늘 갈망하던 여가(예, 피아노, 독서, 교회, 성경읽기 등)는 성인기 이후

여성노인의 일(예, 유치원교사, 성경번역, 어린이 돌봄 등)로 승화되어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여성노인은 가족반대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일에 진입함으로써, 늘 하고 싶은 열망으로 남아있던 것이 성인기 이후에 일로 표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력단절과 여가부재의 삶을 살아온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일과 여가의 생애주기를 살펴봄으로써, 첫째, 여성노인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언하였는데 의의를 지닌다. 둘째, 선행 진로나 일 관련 연구들이 은퇴까지의 생애경로를 탐색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노년기까지 일 생애주기를 확장했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윤소영(2009)이 한국형 여가생애주기를 제안한 바 있지만, 이는 청소년기부터 50대까지 은퇴 후 노후대비 여가를 위한 제언이었기 때문에, 80세 노인까지의 여가생애주기를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제로 여성노인의 삶 속에서 여가경험의 전 생애발달단계를 재조명해보았다는데 그 함의가 크다.

### 참고문헌

- 강승애 (1997). 노인여성의 운동지속이 신체적 기능과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승애 (2006). 노인여성의 수중운동참여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0, 55-59.
- 김두섭 (2001).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김애순 (2012).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나항진 (200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53-70.
- 류도암 (2013). 여성노인의 경제적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85-106.
- 박노숙 (20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과 일의 의미.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국제학술대회자료집, 1.
- 박민정 (2012). 청소년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지은 (2008). 한국노인의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 차이. 한국노년학, 28(2), 227-269.
- 오인근, 오영삼, 김명일 (2009).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1), 113-136.
- 유공순 (2005). 한국 여성노인의 문제와 그 쟁점. 사회과학논집, 26(3), 165-194.
- 유철인 (1998). 생애사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의 해석. 간호학탐구, 7(1), 186-195.
- 윤소영 (2009). 생애주기별 여가활동 모형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형숙 (1994). 생애사연구의 발달과 방법론적 쟁점들. 배종무 총장 퇴임기념 사학논총, 515-530.
- 이민규, 원영신, 홍미화 (2011). 종로탑골공원과 종묘공원이용 남성노인의 여가문화의

- 의미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5, 647-662.
- 이유찬, 한혜원 (2001). 노년기 여가참여형태와 삶의 질 인지와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0(3), 309-319.
- 이재영, 김진숙 (2012).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일의 의미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양기대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8, 353-382.
- 이효선 (2010). 한국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애발달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F. Schütze의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7(1), 49-84.
- 장호중, 신현규 (2008). 노인의 여가스포츠 참가와 대인관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4, 681-690.
- 전상남, 신학진 (2014). 사회적 지지가 무배우자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인지적 기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4(1), 87-101.
- 조만태, 김상대 (2008). 은퇴노인의 스포츠 활동 참가동기가 재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2, 637-649.
- 조은주 (2008). 생활체조 참여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4, 733-748.
- 통계청 (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통계청.
- 한경혜 (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87-105.
- 한경혜 (2005).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남성의 삶.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38차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30.
- 한혜원 (2005). 노인의 여가 스포츠 참여유형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4(5), 713-725.
- Atkinson, R. (1998). *Life story interview*. Sage.
- Butler, R. N. (1991). Improving older women's health. *Geriatrics*, 46(11), 15.
- Butler, R. N., & Schechter, M. (1995). Productive aging. In G. L. Maddox (Ed.), *The encyclopedia of aging* (pp. 763-764). New York: Springer.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94). Personal experience method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413-427).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avighurst, R. J., Neugarten, B. L., & Tobin, S. S. (1968). Disengagement and patterns of aging. In B. L. Neugarten (Ed.), *Middle age and aging: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pp. 161-17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lly, J., & Freysinger, V. (2000). *21st century leisure: Current issue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Lieblish, A., Tuval-Mashiach, R., & Zilber, T. (1998). *Narrative research: Reading,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Sage.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Y: Holt, Rinehart & Winston.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Troisi, J. (2013). *Digital aging: A new horizon for health care and active aging*. The IAGG world congres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1 차원고접수 : 2015. 04. 10.

수정원고접수 : 2015. 05. 12.

최종게재결정 : 2015. 06. 03.

## A Life History Approach to Work and Leisure Experiences of Elderly Women

Nam, Soonhyeon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In general, elderly women are likely to be socially excluded since they are older and at the same time female. This paper attempt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work and leisure of elderly women who are out of work, in comparison to those of elderly men through the life history perspectives across the lifespan development. Participants in the paper were five elderly women over 65 years old who had work experiences after retirement. The data collected from initial questionnaires and four sessions of in-depth interviews between the fall of 2013 and the winter of 2014 were transcribed verbatim and analyzed by the narrative study of lives approach of Lieblich et al. The work life course of elderly women can be divided by the career decision period, the entry to jobs period, the career consolidating period, the golden or dark days in the working life, the retirement period, and the work in later life period. On the other hand, the lifelong leisure cycles of elderly women can be classified into the longing for leisure period, the family-centered leisure time, the challenge for leisure period, the release from family relationships period, and leisure in later life period. The importance of work and leisure experiences in the development of elderly women across the lifespan in their specific ways of being happy aging was discussed.

*Keywords: elderly woman, work, leisure, work across the life course, leisure across the life course, the life-span development, a life history approach*